

논산시, 전역 앞둔 장병 100명에게 명예시민증 수여

✎ 황인홍 | ⓒ 승인 2025.06.11 17:39

- 연무읍 기관단체장 초청으로 더욱 뜻 깊은 의미 더해..
- “논산 시민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지역에서 전한 따뜻한 환영의 인사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전역을 앞둔 장병 100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며 논산시민으로 따뜻하게 맞이했다.

11일 연무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전역예정 장병 대상 논산바로알기’ 행사는 전역장병을 비롯해 연무읍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새마을 단체장 등이참석해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했다.

특히, 기관단체에서 전역장병을 위해 직접 준비한 특별선물을 전달하며 그 동안의 수고에 대한 격려를 비롯해 논산의 명예시민이 된 것에 대한 환영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장병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백성현 논산시장은 “뜨거운 청춘을 바쳐 나라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여러분을 소중한 논산 시민으로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산은 국방군수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 수준의 기업유치에 성공하며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며 “논산의 명예시민이 되신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 전역 이후에도 관심과 사랑으로 논산의 변화를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날 참석한 장병 중 한명은 “군 복무를 하며 논산이 자랑거리가 많고 아름다운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시간이 흐른 뒤에도 논산은 군 복무를 한 지역 그 이상의 가치로 남아있을 것 같다”며 “명예시민으로서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를 비롯해 논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찾아오겠다”는 말과 감사의 말을 전했다.



황인홍 free_web@hanmail.net